

조국 임명 수순에 정국 긴장감 최고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법사위원들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 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왼쪽 두번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 “모든 의혹 해소” … 한국당 “강행시 중대한 결심” 법사위 청문회 개최 여지 남겼지만 성사 가능성 적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 수순을 가시화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법정 시한(2일) 내 끝내 열리지 못하더라도 후속 조치로,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나 청와대의 재송부 기한과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속에서 인사청문회 성사 가능성은 크

지 않아 보인다.

일단 여권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소멸된 만큼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변명쇼’에 불과했다며 임명 강행 시 “중대한 결심”을 예고하고 나서 정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국민 겸증 성격이 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와 적격성 확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며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조성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의 정치공

세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직접 국민을 마주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 상당 부분이 해소됐고, 장관으로서 자질과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 또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인 채택을 위한 법정 시한을 지켜 법사위 의결로부터 5일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국회 능력 콘서트’, ‘대국민 변명쇼’로 깎아내리면서 대어 공세를 강화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고성 메시지도 발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기자간담회에 반발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거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하고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폭거를 저질렀다”며 “셀프 해명쇼를 열었지만, 오히려 부적격 사유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의 의혹은 커졌고 무능한 확인시켰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임명할 태세지만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를 신중론을 펴온 정의당은 전략회의를 통해 금명간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예결위 또 ‘조국 공방’

한국당 “협의를 있어 압수수색”…민주 “예산 결산하는 자리”

3일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하지 않느냐”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일종의 ‘모순’이 아니냐. 직접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상부 장관으로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지, 국민 납득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조 후보자의 피의자 특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에 “원칙에 따라 하지 않을가 싶다”며 “조 후보자는 현재로는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국당 정태욱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와 관련, “유급 학생 격려를 위한 장학금이 있는지 처음 듣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게다가 지금 전 학교 측이 규정을

바꿨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오늘 회의는 지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서로가 묻고 답하는 시간인데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한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철희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 청문 절차 와중에 검찰이 이렇게까지 나선 것은 일종의 청문관 침해라는 생각”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장관도, 청와대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명백히 검찰 사무규칙 위반이며 명백히 검찰 일부의 허극성, 함명”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검찰 사무규칙을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소재·부품 연구인력 훈련 지원”

日 수출규제 추가 대책 마련…대기업 싱크탱크 건의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경제 싱크탱크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3일 밝혔다.

민주당은 R&D(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해 공공연구소 매칭 및 전문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수요기업의 연구인력 훈련을 지원하고, 재량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우수인력 공급 및 유연한 기업환경 조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끝나는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해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아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전담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건의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중 글로벌 전문기업을 5년간 100개 지정해 R&D, 특허 확보, 신뢰성 지원, 양산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촉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들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지난달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일본이 수출하는 상당수 전략물자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됐다”며 “수출규제 위기극복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비박계, 안철수에 러브콜

한국당 공부모임 토론회…김무성·정진석 “보수 대통합 참여를”

자유한국당 내 비박(박근혜)계 인사들이 3일 보수대통합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들의 공부 모임 ‘열린 토론, 미래’에 참석해 “보수 정치의 리더들이 통합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 정치 세력 중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그다음에 거론되

는 대권 주자들이 애국심을 갖고 주도해야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우파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다른 우파세력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완전히 기득권을 없애고 제3지대에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베이스는 한국당에 있지만, 울타리는 허물고 공전, 지역구에 대한 의심 없이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공전제도로 가는 것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 당명을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은 “보수중도 우파 통합에 참여하는 여러 구성원 중에서도 외국에 나가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은 중요한 팩터(요소)”라며 “안 전 의원이 귀국해 중도보수대통합 논의에 참여해줬으면 하는 구체적인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안 전 의원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유보하지만, 그가 선정한 중도 포지션의 가치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며 “보수중도 우파 통합론의 상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초청 강연자로 나선 박형준 동아대 교수

는 “한국당이 가장 큰 정치 세력이지만 입지 측면에서는 안 전 의원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이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통합은 이미 공론화가 시작됐다. 추석이 지나면 본격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리더들이 물밑에서 비공개로 11월 말까지 결론을 내고, 12월에는 통합적이고 대안적인,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야권 세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주자들에게) 한국당으로 돌아오라고 하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재창당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좋음.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근린시설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근린주택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다가구(원룸)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주 택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아파트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예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아파트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오피스텔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